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부 Adults	스프링	73	843 / 1005
		스트림	143	
		리버	172	
		오션	166	
		리이트하우스	110	
		항동캠퍼스	54	
		방 문 자 등	125	
	교회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10명	172
		유 치 부	3중소예배실	31
		유 년 부	5중 예배실	30
		소 년 부	7중 예배실	30
		청소년부	5중 예배실	44
		항동교회학교	항동캠퍼스	19
주일 오후 Sunday Afternoon service				128
수 요 예 배 Wednesday night service	2층 대예배실			85
토 요 기 도 회 Saturday night prayer				118
실 버 스 쿨 Silver school for the aged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 장 인 예 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s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합계
	87	104	100	106	109	107	613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 상주교회 (주용은)
-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 예닮교회 (조원혁)
- 주안교회 (엄명섭)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 대만 (김성문/조숙순)
-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 총회북한선교
-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구 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 계	2	14	6	1	1

지난 주 헌금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40,550,000 원	지난주 지출 총액	35,895,166 원
헌금 총액 누계	1,142,169,780 원	지난주 지출 누계	1,128,247,791 원
지지난주 잔액	9,267,155 원	지 난 주 잔 액	13,921,989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 름	주 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6	태 O 순	62동어선교회	김태희	2월 8일
7	유 O 진	상 암 동	김태희	2월 8일
8	고 O 희	상 암 동	470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9	장 O 균	상 암 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0	이 O 진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1	김 O 영	상 암 동	515남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2	김 O 숙	상 암 동	514여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3	김 O 은	상 암 동	306여선교회	스스로	3월 15일
14	이 O 을	도 내 동	sone선교회동탄	스스로	4월 19일
15	장 O 정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6	박 O 인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7	장 O 희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3일
18	이 O 엽	남가좌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19	이 O 아	남가좌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0	조 O 애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1	엄 O 석	송 도 동	569남선교회	김예순	5월 24일
22	손 O 지	송 도 동	556여선교회	김예순	5월 24일
23	탄 O 호	원 흥 동	항동캠퍼스	스스로	5월 31일
24	양 O 훈	구 로 동	400남선교회	김승중	6월 21일
25	김 O 식	삼 성 동	항동캠퍼스	스스로	6월 21일
26	문 O 석	상 암 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27	김 O 신	상 암 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7월 12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2026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 주제 : Bible Tour(His Story) 서울지방회 연합여름성경학교
- 일시: 8월 3일(월) – 5일(수)
- 장소: 성소기도원 (강원도 철원군 서면 싸리골길 79)
- 특별사항: 소년부 찬양팀이 연합 여름성경학교의 찬양과 율동을 인도합니다.

2. 선교회 안내
1) 선교회 회장단 모임
- 일시: 오늘 3부 예배후 12시
- 장소: 5층 새가족실

2) 선교회 월례회
- 일시: 다음주 3부 예배 후
- 장소: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3. 2026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 안내
-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후원헌금] 헌금봉투 사용)
- 온라인 헌금시 지정으로 'OOOO여름 후원' 또는 'OOO 교회학교' 로 표기

4. 주일 예배시 주차 금지 구역 안내
- 주일 낮 교회주변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주차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역자 여름 휴가 동정
- 8월 3일 ~ 7일 : 권수용 목사
- 8월 3일 ~ 5일 : 김은성 목사

6. 담임목사 동정
- 8월 6일(목) : 나사렛학원 법인사무국
- 8월 24일 ~ 29일(토) : 중국 상자교회 초청 목회컨설팅 (베이징, 상하이)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Meditation) 인도 & 말씀 : 김은성 목사		2부 전통예배(오전9:00) 2nd Service (Traditional) 인도 : 유덕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3부 은혜예배(오전10:30) 3rd Service (Family) 인도 : 한빛나,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 상 광 고	찬 양 단	아바딤 찬양단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Presider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 도 자 Presider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 송 Hymn	♣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장옥수 장로
찬 송 Hymn	♣ 찬송가25장 면류관 벗어서(1, 2, 3절)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 양 Choir Song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11:17-24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3:1-11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나를 통하여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차종환집사 (실행재직)	말 씀 Message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3:1-11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 이
말 씀 Message	접붙임 받은 은혜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나를 통하여
찬 송 Hymn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찬 양 Choir Song	순종의 기도 (임마누엘 찬양대)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말 씀 Message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파송의찬양 Celebration	아바딤 찬양단
		찬 송 Hymn	찬양8터: 복되신구세주예수 (찬 315장)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폐 회 송 Closing Hymn	반 주 자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 도 안순자 권사 (다음주: 이기연 권사)
- 말 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 경 미가 7:7-10
- 말 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
- 설교자 권수용 목사

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8월 8일** 남선교회(400) 여선교회(470) **8월 15일** 남선교회(569) 여선교회(558)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 **[3부 안내위원]** (1층) 김광동 조월심 (2층) 이상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 **주차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십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 반 헌 금** 0436-0900-1381-1

예 배 봉 헌 담 당 (Usher team)

구분	금 주	다 음 주	봉 헌 위 원
1부	교 역 자	교 역 자	교역자
2부	임재용 장로	이재명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3부	이재명 장로	최인철 장로	강경자 김은해 신경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기 도 위 원
1부	인 도 자
2부	신승중 장로
3부	임재용 장로

생명의 말씀
신민규 담임목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1-11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향기가 아니라 편지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3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편지는 내용을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의 뜻과 의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성령으로 기록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예수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비교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두 종류의 '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먹의 편지와 영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편지가 종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쓰이는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편지는 글로 표현됩니다. 잉크로, 펜으로 씁니다. 찢어 버릴 수도 있고 구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쓴 편지, 곧 심령에 새겨진 편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 (고후 3:3).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 드러납니다. 행동과 말, 태도와 선택을 통해 드러나고 읽힙니다.

둘째, 두 종류의 '만족'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 난 만족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후 3:5). 만족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난 만족,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만족입니다. 똑같이 만족이지만 출처가 다르고 뿌리가 다릅니다. 스스로 난 만족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만족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얻는 만족입니다. 인간 중심의 만족입니다. 세상적인 만족입니다. 이것도 만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셋째, 두 종류의 '영광'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없어질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은 율법, 곧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9은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즉 복음,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큰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두 가지입니다.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모세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가려질 영광입니다. 왜냐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영광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두 종류의 '소망'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고후 3:12).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담대합니다. 소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입니다. 땅의 소망은 잠깐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소망만 좇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채를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얼굴 천체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냐면 13절 말씀대로 **"...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입니다.

(번역) 이와가타 집사

설 교 노 트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소아마비를 앓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걸을 때마다 목발에 의지해야 했고, 몸이 불편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서서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엿장수가 지나가다가 소녀에게 깨엿 두 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가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격려일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는 소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며, 사람들의 선의와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9년에 별세한 서강대교회 영문과 장영희 교수가 들려준 자신의 경험입니다. 오늘날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중년과 노년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져 삶이 버겁게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건네는 "괜찮아."라는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 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라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강림후 10주 2026년 8월 2일 (제 73권 31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거룩한 영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교회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상암동교회(구 성암교회)는 1955년 6월 8일 상암동 산기슭 (화개4단지)에서 창립이래 70여년동안 상암동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회로 마을 원주민들 거의가 한번쯤은 나와 본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다. 지금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장자교회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가 상암동교회 출신이다.

담임목사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박사)를 졸업했다. 미국유학 중 캔사스주에서 정선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리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나사렛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 부 목 사 : 유덕선 권문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 협동목사 : 김진곤 류욱렬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경치호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 교육사 : 문은경
- 시무장로 : 김은겸 민병석 최장수 도영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안 임무안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 원로장로 : 장석출 권태환 최이정 ■ 은퇴장로 : 박순영 이훈태 박수영 차주성 송영희 유준식
- 명예장로 : 강상대 김무일 박영에 양철호 윤성용 유종종 이두표 강영호 ■ 관리사 : 강신종
- 지 휘 :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기한 조병수 김기호 홍흥표 문경빈 (간사)조성민
- 반 주 : (1부) 한희나 (2부) 이현주 (3부) 권은선, 김승희 (항동캠퍼스) 이진화 (새벽) 박은희 소재경 소경옥

예배시간 안내 Worship Services

주 일 1부 예 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 당
주 일 2부 예 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 당
주 일 3부 예 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 당
항동캠퍼스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 10:30	항동캠퍼스
항동캠퍼스 주일예배 2부	주일오전 12:30	항동캠퍼스
주일오후예배	주일오후 02:30	2층 본 당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06:00	2층 본 당
수 요 예 배	수요오후 07:30	3층본당,항동캠퍼스
토요찬양기도회	토요오후 07:30	2층 본 당
청 소 년 부	주일오후 12:00	5층 예배실
청 년 부	주일오후 12:00	2층 본 당
유아부(0~4세)	주일오전 10:30	1층 101호
유치부(5~7세)	주일오전 10:30	3층소예배실
유년부(1~3학년)	주일오전 10:30	5층 예배실
소년부(4~6학년)	주일오전 10:30	7층 예배실

교회오시는 길 Map & Directions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06 www.sangamdong.org
청년수양관 (신원읍 용강로 838) : 담임사역자 권우일 목사 **항동캠퍼스** (여장구 꽃이들로 42, 9층) : 담임사역자 권윤석 목사

あなたがたはキリストの手紙として コリント第二3:1-11

コリント第二の手紙2章には**「わたしたちはキリストの香り」**だと言う御言葉が出てきます。ところで今日の3章では、香りではなく手紙だと言う表現でわたしたちを呼んでいます。コリント第二 3:3を見ると**「なたがたは、キリストがわたしたちを用いてお書きになった手紙として…」**だと言っています。そしてその手紙は墨で書いたものではなく、生きている神様の霊、聖霊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あり、石の板に書かれたのではなく人の心の板に書かれたものだと言うのです。手紙は内容を書いて他の人に送ることです。相手は手紙を読み、その人の意志と その意図を伝えようとする内容を理解するのです。

わたしたちがイエス・キリストの手紙であるということは、同じように、聖霊によって記された私たちの人生が他の人々に映し出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わたしたちが語り、行動し、生きるそのすべての姿を通して、イエスを読み取るのです。ですから、わたしたちは一言で言えばイエスの手紙です。そのためわたしたちがどのような内容を世の中に伝えながら生きていくのかは、本当に重要です。したがって、わたしたちが主に対する希望を抱いて生きているようこ、わたしたちの周りの人々も同じ希望を持って生きられるように、今日の本文が示す重要な比較点をきちんと押さえ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第一に、2種類の「手紙」を分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墨の手紙ではなく魂の手紙です。使徒パウロは2節で**「わたしたちの推薦状は、あなたがた自身です。それは、わたしたちの心に書かれており、すべての人々から知られ、読まれています」**とあります。手紙は紙にだけ書かれるのではなく、心に書かれる手紙があると言うのです。墨で書かれた手紙は文字で表現されます。インクで、ペンで書かれます。破いて捨てることもあり、燃がして捨てることもあります。しかし魂で書いた手紙、つまり心臓に刻みつけられた手紙は消えたりしません。そして多くの人が見て読むことができます。3節では、はっきりと言います。**「墨ではなく生ける神の霊によって…石の板ではなく人の心の板に、書きつけられた手紙です」**（コリント第二 3:3）。心は目で見えませんが、生き方であらわれます。行動と言葉、態度と選択を通じて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第二に、2種類の「心」を分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自分からうまれた誤ると神様から生まれた誤ぶです。**「独りで何ができるなどと思う資格が、自分にあ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わたしたちの資格は神から与えられたものです」**（コリント第二 3:5）。誤ぶにも2種類あります。1つは自分から生まれた誤ぶ、もう一つは神様から生まれた誤ぶです。同じ誤ぶですが出処が違い根が違います。自分から生まれた誤ぶの特徴は何でしょうか？相対的な誤ぶです。他の人と比較して得る誤ぶです。人間中心の、世俗的な誤ぶです。確かにこれも一種の誤ぶではあります。しかし問題は、それが長続きしないという点です。時間が経てば変わり、状況が変われば消えてしまうのです。

第三に、2種類の「冠」を分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なくなる栄光と永遠の栄光です。7節を見ると**「石に刻まれた文字に基づいて死に仕える務めさえ栄光を帯びて」**と言います。それは無くなる栄光を言います。この栄光は律法、つまりモーセに与えられた職分の栄光です。しかしコリント第二 3:9は言います。**「人を罪に定める務めが栄光をまとっていたとすれば、人を義とする務めは、なおさら、栄光に満ちあふれています。」**つまり福音、義の職分の栄光は更に大きな栄光です。ここでの栄光は2種類です。無くなる栄光と永遠の栄光です。モーセの栄光と神様の栄光だと言うことができます。モーセの栄光は、覆われてしまう栄光です。なぜなら、消えてしまうものだからです。神の栄光は、あられわる栄光です。永遠だからです。

第四に、2種類の「希望」を分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は大地の希望と天の希望です。**「わたしたちは確信に満ちあふれてふるまっており」**（コリント第二 3:12）。希望がある人は姿勢が違います。勇敢です。希望にも2種類あります。大地の希望と天の希望です。大地の希望はしばらくの希望です。天の希望は永遠の希望です。それでわたしたちは地上の望みだけを追い求める者ではなく、天の希望、永遠の希望を追って生きる者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モーセがシナイ山で十戒を受け取り、山を降りてきたとき、彼の顔には光輝がありました。神と交わり、みことばを受け取って戻ってくる中で、それは神が与えられた賜物だったのでしょう。しかしモーセは、その光輝を誇ろうとはしませんでした。むしろ人々の前では、顔全体を覆うように布をかけました。何故なら1節の御言葉の通りに**「消えあるべきものの最後をイスラエルの子らに見られまいとして、自分の顔に覆いを掛けた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す。

（번역) 이와가타 집사

你们是基督的信 哥林多后书 3:1-11

哥林多后书第2章有一句话说，我们都有 **"基督馨香之气"** （林后 2:15）。然而今天的第3章，不用馨香，却用书信来称呼我们。林后 3:3说： **"你们明显是基督的信，藉着我们修成的…"** 并且这信不是用墨写的，乃是用永生 神的灵，就是圣灵写的；不是写在石版上。信是把内容写下来寄给别人的。对方读了信，就知道写信之人的心意、意图和所要传达的内容。

同样，我们若是耶稣基督的信，那么由圣灵所写成的我们的一生，就映照在别人眼前。我们所说的话、所行的事、所过的日子，这一切都叫人透过我们读到耶稣。所以一言以蔽之，我们就是耶稣的信。既然如此，我们把怎样的内容带到世上去传，就极为重要。因此，正如我们怀着对主的盼望而活，为叫我们周围的人也怀着同样的盼望而活，我们必须抓住今天经文所讲的几个重要的对比。

第一，当分辨两种 "信"： 墨之信与灵之信。使徒保罗在第2节说： **"你们就是我们的荐信，写在我们的心里，被众人所知道所念诵的。"** （林后 3:2）。信不只写在纸上，也有写在心上的信。墨写的信是用文字表达的，用墨水、用笔写成，可以撕掉，也可以揉搓。然而灵写的信，就是刻在心灵里的信，不会消失，也不会磨灭，并且许多人都能看见、都能读到。第3节说得明白： **"不是用墨写的，乃是用永生 神的灵写的…不是写在石版上，乃是写在心版上。"** （林后 3:3）。心是眼睛看不见的，却在生活中显露出来，藉着行为与言语、态度与抉择显露出来，被人读到。

第二，当分辨两种 "满足"： 出于自己的满足与出于 神的满足。保罗说： **"并不是我们凭自己能承担什么事；我们所能承担的，乃是出于 神。"** （林后 3:5）。我们不可几事像出于自己一般自以为是，我们的满足乃是出于 神。满足也有两种：一是出于自己的满足，另一种是出于 神的满足。同样是满足，来源不同，根基也不同。出于自己的满足有什么特点呢？是相对的满足，是与别人攀比得来的满足，是以人为中心的满足，是属世的满足。这也算是一种满足。然而问题在哪儿呢？就是不能长久。日子一久就变了，境遇一变就没有了。

第三，当分辨两种 "荣光"： 要废掉的荣光与永恒的荣光。第7节说： **"那用字刻在石头上属死的职事尚且有荣光…"** （林后 3:7），接着又说这荣光原是渐渐退去的。这荣光是律法的荣光，就是赐给摩西职分的荣光。然而哥林多后书 3:9说： **"若是定罪的职事有荣光，那称义的职事荣光就越发大了。"** 可见福音，就是称义之职分的荣光，是更大的荣光。这里荣光有两样：要废掉的荣光与永恒的荣光，也可以说是摩西的荣光与 神的荣光。摩西的荣光是要被遮盖的荣光，因为它终必消逝。神的荣光是要显明的荣光，因为它是永恒的。

第四，当分辨两种 "盼望"： 地上的盼望与天上的盼望。 **"我们既有这样的盼望，就大胆讲说。"** （林后 3:12）。有盼望的人，姿态不一样，他是大胆的。盼望也有两种：地上的盼望与天上的盼望。地上的盼望是暂时的盼望，天上的盼望是永远的盼望。所以我们不要作单单追逐地上盼望的人，乃要作随从天上的盼望、永远的盼望而活的人。摩西在西奈山领受十诫下山的时候，脸上发光。那是他与 神相交、领受话语之后下山时， 神所赐下的礼物。然而摩西并不夸耀那光。反倒在众人面前用帕子蒙上整个脸面。为什么呢？正如第13节所说： **"…不像摩西将帕子蒙在脸上，叫以色列人不能定睛看到那将废者的结局。"**

（번역) 김기호 집사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2 Corinthians 3:1-11

In 2 Corinthians 2, we are called **"the aroma of Christ."** But in chapter 3, instead of aroma, Paul uses the metaphor of a letter. As 2 Corinthians 3:3 says,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And, it is not written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A letter is something you write and send to another person.. The recipient reads it and understands the writer's intent, purpose, and message.

In the same way, if we are letters of Jesus Christ, our lives—recorded by the Holy Spirit—are on display to others. Everything we say, do, and live out becomes a means by which people read Jesus through us. So we are, in a word, Jesus' letter. Therefore, it truly matters what content we carry and convey to the world. Just as we live with hope toward the Lord, we must grasp the important contrasts in today's passage so that those around us may also live with the same hope.

First,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letters"—the letter of ink and the letter of the Spirit. In verse 2, Paul says, **"You yourselves are our letter, written on our hearts, known and read by everyone."** A letter is not only written on paper: there is also a letter written on the heart. A letter written in ink is expressed in words, with pen and ink. It can be torn or crumpled. But a letter written by the Spirit—engraved on the heart—does not disappear; it cannot be erased, and many people can see and read it. Verse 3 clearly states: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2 Corinthians 3:3). The heart is invisible, but it is revealed through life—through actions, words, attitudes, and choices.

Second,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competence"—self-derived competence and God-given competence.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2 Corinthians 3:5). There are two kinds of competence: one that comes from ourselves, and one that comes from God. Though both may be called "competence," their source and root differ. What is characteristic of self-derived competence? It is relative—gained by comparing with others, human-centered, worldly. It may be satisfaction, but the problem is that it does not last: it changes over time and disappears when circumstances shift.

Third,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glory"—glory that fades and glory that is eternal. Verse 7 says, **"Now if the ministry that brought death, which was engraved in letters on stone, came with glory"** — and it speaks of a glory that fades. This glory belongs to the law, the ministry given to Moses. But 2 Corinthians 3:9 declares: **"If the ministry that brings condemnation was glorious, how much more glorious is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That is, the glory of the gospel, the ministry of righteousness, is far greater. Here we see two glories: one that fades and one that is eternal. We may also call them Moses' glory and God's glory. Moses' glory was to be veiled because it was passing away; God's glory is to be revealed because it is eternal.

**Fourth, we must distinguish between two kinds of "